대행 선사 원력 도량 참배한 세계 석학들 "원더풀"

한마음과학원, 9월 27일 국제학술대회 워크샵 개최

한마음과학원 국제학술대회 참여한
세계 석학들 20여 명 부산지원 찾아
한마음유치원·대웅보전 등 도량탐방
대행선사 교육철학 · 대작불사 감탄
들차회 찻자리·음성공양에 박수갈채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9월 27일 부산지원 일원에서 '묘공당 대행선사 열반 10주기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 워크샵'을 진행했다. 사진은 참가자들이 한마음유치원을 견학하는 모습.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한마음과학원(원장 혜수)에서 주최한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한 세계 석학들이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을 방문했다. 대행선사의 가르침과 원력이 담긴 불사의 결과를 확인한 석학들은 연신 감탄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은 9월 27일 부산지원 일원에서 '묘공당 대행선사 열반 10주기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 워크샵'을 진행했다.

워크샵에는 부산지원 지원장 혜도 스님과 혜동 스님, 혜찬 스님, 혜진 스님, 혜각 스님, 브렛 G. 샤프스 교수(미국 브리검영대) 한스욕 에플레 교수(독일 베를린 샤리테 의과대학), 리가르도 다니엘 블랑꼬 박사(아르헨티나 의료협회), 김재영 교수(서강대), 한마음과학원 학자 등 20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먼저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을 방문해 대행선사의 교육철학을 현대 교육에 적용한 현장을 둘러봤다. 한마음 유치원은 "정신세계와 마음의 도리를 알아 물질세계에 바로 내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들이 우리나라의 주인이 되게 해야 한다"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에 따라 설립됐다. 참석자들은 유치원 수업 현장을 지켜보며 유아들의 학습 현장과 및 시설을 직접 견학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도량을 탐방하며 대웅보전을 방문했다. 대웅보전에서 참가자들은 부처님께 참배한 후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설립 역사를 설명하는 영상을 시청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불사는 한국 최고의 장인이라 손꼽히는 중요무형문화재 74호 최기영 대목장이 도편수로 진두지휘했으며, 주불인 석가모니불은 목아 박찬수 조각장이, 후불 목탱화는 문화재 기능보유자인 청원 스님이 담당했다. 기와는 중요문화재인 이근복 번와장, 옻칠은 정수화 칠장이, 단청은 김성규 단청장이, 외부 벽화는 이연욱 화백이 참여했다.

부산지원은 1987년 12월 13일에 개원했으며 개원 이후 대행 선사 초청법회를 부산 KBS홀과 사직실내체육관 등에서 6차례나 개최하며 포교 활동을 이어왔다. 부산 KBS홀에서 열린 법회에는 연이어 2000여 명이 동참해 한국불교에 반향을 일으켰다. 1997년 9월 28일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봉행된 팔만대장경 전산화를 위한 대행 선사 부산대법회에는 3만여 명이 참석해 성금 2억 5000만 원을 모금 · 전달해 고려대장경연구소의 팔만대장경 전산화 완성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지원장 혜도 스님은 "부산지원에서 오랜 세월 수행과 포교활동을 이어왔다"며 "불사를 하는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경험들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참가자들은 해수관음상에 참배한 후 들차 찻자리에서 소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한마음선다회는 야외에서 차를 마실 수 있는 들차 찻자리를 열었으며 차 한 잔에 담긴 정성과 선의 정신을 전했다. 한마음선다회는 백차, 말차, 황차 등 5대 차류를 맛볼 수 있는 찻자리와 가을을 느낄 수 있는 다화(茶花)로 손님들을 맞았다. 또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선법합창단과 정필윤 지휘자의 음성공양과 윤재웅 선생의 피아노 연주곡이 더해지자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소감을 전했다. 한스욕 에플레 교수는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을 보았을 때 성장이란 단어가 떠올랐다"며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성장하는가는 중요한 숙제다. 우리도 마음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됐다. 오늘의 환대에 깊이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리가르도 다니엘 블랑꼬 박사는 "찻자리와 음악들이 정말 아름답고 도량을 돌아보는 시간이 행복했다"며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한마음과학원은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에서 '뉴노멀 시대, 지구촌 공생의 삶: 마음, 과학, 종교'를 주제로 '2022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묘공당 대행선사 열반 10주기를 맞아 열린 이번 국제학술대회에는 미국 · 캐나다 · 독일 · 이스라엘 · 아랍에미레이트 · 대만 · 아르헨티나 등 8개국 20여 명의 석학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석학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기에 처한 지구촌의 문제를 되짚고 공생, 통합, 평화의 방안을 모색하고 비전을 제시했다.

송삼종 부산공무원불자회 신임회장 취임

9월 23일, 쿠무다서 이 · 취임식

송삼종 부산시 인재개발원장이 부산공무원불자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부산시공무원불자회는 9월 23일 부산 송정 쿠무다 콘서트 홀에서 '부산시 공무원불자회 회장 이 · 취임 법회'를 개최했다.

법회에는 쿠무다 이사장 주석 스님, 최대경 부산시공무원불자회 고문, 이희태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부회장, 신기열 부회장, 김홍종 부회장, 장병주 사무총장을 비롯한 공무원 불자들이 참석했다.

송삼종 신임회장은 "우리 공직자들은 일반 시민들보다는 항상 한 차원 높은 덕목을 요구받으며 살아간다. 보다 공정해야하고 보다 청렴해야 하며 품위를 지키고 윤리적으로 더 높은 기준을 적용받는다"며 "불자 공직자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는 것은 부처님의 높은 가르침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길이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아래 서로 힘을 합치고 연대를 돈독히 하여 우리 공무원불자회가 가장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신행불자회로 발전하도록 진심으로 발원한다"고 말했다.


부산시공무원불자회는 9월 23일 부산 송정 쿠무다 콘서트 홀에서 '부산시 공무원불자회 회장 이 · 취임 법회'를 개최했다. 송삼종 신임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행사는 전임 회장의 공로를 치사하고 공로패와 사진첩을 전달했으며 이후 이병주 밴드의 축하공연도 이어졌다.

부산시공무원불자회는 1991년 9월 당시 부산시청 내무국 시정과장으로 재직하던 주동관 전 상수도본부장을 초대 회장으로 시작됐다. 출범 당시 20여 명의 불자들이 일과 후 회의실에서 법문 테이프를 들으며 모임을 이어갔으며, 1996년 당시 교통기획과장으로 재직하던 최익두 고문이 2대 회장에 추대돼 2009년 7월까지 18여 년 동안 모임을 이끌었다. 2009년 7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이갑준 고문이 제3대 회장으로 추대됐으며, 16개 구 · 군 불자회 창립으로 모임을 확장해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부산시공무원불자회는 우리불자회 봉사단을 구성해 금정노인요양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팔관회, 사명대사 추모대재 등 불교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월요 참선반 운영, 사단법인 복합문화공간 쿠무다와 협약식, 부처님오신날 공양물 나눔 행사 등을 전개해 2020년 조계종부산연합회에서 수여하는 포교대상을 수상했다. 부산시공무원불자회는 꾸준한 활동과 회원 모집으로 현재 15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어사, 부산불교 활성화 위한 간담회

9월 25일, 20여 신행단체 참석
"어린이 · 청소년 포교 중요해"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보운)가 9월 24일 선문화교육관에서 '부산불교 활성화를 위한 포교신행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포교신행단체의 현황을 파악해 개선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교구본사 범어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 포교국장 눌은 스님과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부산개인택시법륜회, 부산불교방송 사진가회, 범어사 불교대학총동문회, 금정총림 포교사회, 부산불교지도자포럼, 국제포교사회 등 신행단체 대표 및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신행단체에서는 무엇보다 어린이 및 청소년 포교에 대한 발전과 향후 계획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원규 부산불교방송 사진가회 감사는 "어린이들이 편하게 사찰을 찾기에는 너무 엄격한 기준이 많고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기 어려운 환경인 것 같다"며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포교와 공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9월 24일 선문화교육관에서 '부산불교 활성화를 위한 포교신행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천용귀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사무처장은 "파라미타는 불교기관이다. 스님들과 사찰의 연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범어사 템플스테이가 학생들을 위해 열린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지 보운 스님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한다"며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경내에서 뛰어놀고 사찰에서 지낼 수 있도록 포교방향을 논의하겠다. 또 파라미타 활동 시 적극 동참하도록 의견을 수용하고 구체적인 안건 및 논의를 가져오면 더욱 더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 청소년 장학금 지원 및 불교대학 활성화, 각 신행단체 활동 정보도 공유했다. 주지 보운 스님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소통하고 현실적인 대안에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오늘 참석해준 모든 신행 단체에 감사하다. 부산불교를 대표하는 범어사로 역할을 다하고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불교聯, 제14대 회장 보운 스님 추대

9월 27일, 제51차 임시총회 개최



"수천 수만 부산시민 불자들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과거 수천 년 간 이어져 온 한국불교의 신심, 부산불교의 원력을 늘 새길 것입니다"

부산불교연합회 제14대 회장에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부산불교연합회는 9월 27일 범어사 선문화교육관 대강당에서 제51차 임시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을 추대했다.

임시 총회에는 재적 108명 중 위임 8명, 참석 63명 총 71명이 참석해 성원됐으며, 정관 제15조 2항에 의거해 수석부회장 영제 스님이 임시 의장을 맡아 진행했다. 총회에서 고문 정각 스님이 보운 스님을 회장으로 추대하고 회원 스님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해 의결됐다.

보운 스님은 "부산 불자들은 하나같이 마음을 모아 삼보를 외호하며 신심을 놓지 않았다. 부산을 '불도(佛都)'라 부르는 이유이다"며 "남다른 부산 불자들의 신심에 힘입어 1980년 부산불교연합회가 불법홍포를 기치로 창립됐다. 부산불교의 원력을 늘 새기고 부산불교연합회는 부산시민들을 위해 언제나 저물지 않는 불빛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회장 보운 스님은 금용암 주지 범수 스님을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으로 지명했으며, 회원 스님들의 찬성으로 임명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통도사, 제1회 전국 초중고 사생실기대회

9월 24일, 천년고찰 및 자연환경 주제

영축통림 통도사(주지 현문)가 9월 24일 통도사 경내 일대에서 제1회 전국 초중고 사생실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생대회는 개산대재를 기념하여 열렸으며, 주제는 '창건 1377주년인 통도사 천년고찰 및 자연환경'이다.

참가한 전국 초중고 200여 명의 학생들은 불지종가 통도사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화폭에 담았으며, 함께 참여한 학부모들은 가을 국화로 수놓은 도량에서 여유를 만끽하며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으로 회향했다.

주지 현문 스님은 개막식에서 "개산 이래 통도사는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담아 고유의 정신을 이어온 대가람"이라며 "개산조 자장율사의 정신과 오랜 시간 이어온 전통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공유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수상자는 9월 27일 통도사 홈페이지와 양산미술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시상식은 10월 4일 오전 10시 통도사 설법전에서 열린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상금 100만 원, 최우수상 각 70만 원, 은상 각 30만 원 등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입상작과 출품작은 10월 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양산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전시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생명나눔 부산, 난치병 환우 돕기

9월 24일, 부산 영광도서 8층

부산지역 본부 창립 16주년 기념
기금 마련을 위한 하루찻집 열어
공연 등 다양한 재능 기부 무대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가 9월 24일 부산 서면 영광도서 8층에서 '난치병 환우 돕기 생명나눔 기금 마련을 위한 라온(LA · 溫) 하루찻집'을 열었다.

하루찻집은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창립 16주년을 기념하여 부산 선광사 주지 성문 스님의 오공양작법, 동림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 등 다양한 재능기부 무대로 진행됐다.

본부장 심산 스님은 개막식에서 "코로나로 인해 활동이 많이 위축되었지만 오늘 행사는 자비와 나눔을 위한 행사로 뜻깊다"며 "아울러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가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불교계에서는 유일한 기관이다. 그동안 신뢰를 인정받고 활동한 역량을 인정받은 것으로 느껴져 의미가 남다르다. 앞으로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